



KEDI에 CIES 운영 제언

임 상 현 | 유네스코본부(교육정책전략국) 교육정책자문관

I. 머리말

제목의 뜻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국제교육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Education Studies : CIES)를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는 것인데, 이 센터가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이 센터가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는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외국 교육과 그 제도 등에 대한 연구, 두 번째로는 개별 국가나 국제기구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육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에 관한 연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의 두 가지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제교육전문가 양성이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다.

II. 외국의 교육에 대한 연구

1. 선진국 교육 연구

외국 교육에 대한 연구는 연구 목적의 차이 때문에 외국을 선진국과 발전도상국으로 나누

어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선진국 교육에 대한 연구 수행에 대해서 보면, 이 기능은 사실상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의 국제교육협력 활동 중 가장 활발히 이루어져 온 부분이다. 그리고 이 형태의 국제협력은 선진국 교육제도의 보다 우수한 점을 찾아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한다는 목적이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인식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이 국내에서 다시 효과적으로 정리, 누적, 공유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비는 많이 투자되는데, 남아있는 정보는 많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피상적인 수준에서 중복되거나 잘못 알려져 있는 것도 있고, 그 정보가 어디 있는지 쉽게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낭비를 반복하지 말고 소위 선진외국의 교육정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자면 결국 누군가가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맡아서 해야만 가능할 것인데 이 기능

을 수행하도록 센터를 만들자는 것이다.

직접 보고 듣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외국을 방문할 기회를 가지기도 해야 하지만, 이미 다녀간 사람들이 수집한 1차 정보를 이해하고 가면 좀더 다른 시각에서 그리고 좀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 교육을 안다는 것을 단순히 외국에 어떤 교육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의 성공과 실패, 그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안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의 교육제도를 우리 교육관계자들이 참고하게 한다는 일차적 목적에서 더 나아가 외국의 교육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비판적 안목도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분석활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평가적 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국내에서 교육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교육제도를 평가하고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확대된 다양한 변수의 검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발전도상국 교육 연구

선진국 교육뿐 아니라 아직 발전이 안된, 발

전이 느린 나라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교육이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의미에서 인도적인 목적으로 이런 나라들의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해서이고, 부수적으로는 이런 도움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반대급부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¹⁾

사실상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미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발전도상국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OECD 자료²⁾에 의하면 OECD DAC(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³⁾들이 개별 국가별로 2003년 다른 나라에 원조한 금액(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은 총 685억 불로 이 수치는 2002년에 비해 4%, 2001년에 비해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2003년의 경우 이 금액은 DAC 모든 회원국들의 국민소득을 합한 금액의 0.25%에 해당하고 2002년 0.23%에 비해서 증가했다. 유네스코가 2004년 발간한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05'⁴⁾에 의하면 2001~2002년 2년간 이들 DAC 국가들의 원

1) 물론 선진국 범주에 들지 않는 나라들의 교육도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한 사례로서 연구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 교육부의 경우 중국이나 인도 등 경제적으로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국가들의 최근 발전에 기여한 교육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2) 'OECD in Figures, Statistics on the Member Countries'는 OECD Observer의 부록으로 매년 발간되는 간략한 통계 자료집으로 원조, 교육 등 각 부문의 회원국별 기초통계들을 비교제시하고 있다. 원조금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의 DAC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DAC는 국가 대 국가간(bilateral) 원조 사업을 하는 원조국들 간의 포럼으로 회원국은 총 23개국으로 다음과 같다.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델란드, 포르투갈, 영국, 미국, 유럽공동체(이상 '61년 가입), 노르웨이('62), 덴마크('63), 오스트리아, 스웨덴('65), 호주('66), 스위스('68), 뉴질랜드('73), 핀란드('75), 아일랜드('85), 스페인('91), 룩셈부르크('92), 그리스('99)

조금 총액의 10%가 교육부문에 투자되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라는 하나 아직 DAC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고 우리 경제가 좀더 나아지고 소득이 보다 향상되어 ODA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도 우리의 원조금액이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원조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KOICA)의 예산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고 지원사업에서도 교육부문의 예산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⁵⁾에 의하면 2003년의 경우 KOICA 총사업예산 124백만 달러의 약 20%가 외국의 교육사업에 무상원조 되었으며, 이것은 2002년의 약 14%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증가한 비율이다.

이러한 원조사업의 예산을 설명하는 이유는 국제협력 관계에서 발전도상국의 교육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함이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고 이 일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문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조언과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 당연히

이런 조언과 협력의 기초가 되는 연구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지역,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 할 때 우리의 국익과 수혜국의 혜택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전략 수립을 위해 대상 가능 수혜국들의 교육상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원조 수혜국의 교육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교육투자의 우선 순위를 파악하고 원조할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경우 당연히 원조 수혜국의 교육과 그 환경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많은 DAC 회원국 원조기구들이 교육학 부문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본부와 지역(외국) 사무소에서 일하게 하는 이유도 교육에 대한 일반적 지식은 물론 원조수혜국들의 교육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⁶⁾

개발도상국의 교육에 대한 이해는 개별국가들의 원조사업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에서도 요구된다. 특히 유네스코나 World Bank와 같이 교육사업의 비중이 큰 기구들은 본부나 지역사무소에서 자체 직원으로서도 많은 교육전문가를 필

4) UNESCO는 각 회원국에서의 Education For All(EFA) 사업을 촉진시키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하기 위해서 매년 상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04에 발간된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05'의 Chapter 5. Meeting our international commitments에서 DAC, World Bank 등의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분석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OECD PISA의 국제학력비교 결과를 토대로 한국 교육을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5) KOICA 홈페이지(www.koica.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여기서 인용된 자료는 KOICA 해당 부서(협력정책반)에 본인이 직접 요청하여 확인한 것이다.

6)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없지만 본인이 유네스코 본부에 파견 와서 일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KOICA와 같은 외국의 원조기구, 예를 들면 캐나다의 CIDA(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덴마크의 DANIDA(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영국의 DIF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의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협력하거나 만날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교육학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었다.

요로 하지만 사업수행과정에서도 세계 각 지역별 교육전문가들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로부터 전문적 조언과 협력(consultancy & expertise)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전문가들도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해서 해외로 진출하였으면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외화도 획득하면서 세계 속에서 우리의 활동무대를 넓혀 가는 것은 얼마나 보기 좋고 보람된 일이겠는가.

Ⅲ. 교육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에 관한 연구

국제협력 활동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단 앞서 본 개별 국가들(Bilateral)의 원조 자금 비율로서도 판단할 수 있었지만, 이 뿐 아니라 국제기구의 협력활동(Multilateral)에서도 교육부문의 비중은 결코 작지 않아 보인다.

DAC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2001~2002년의 경우 UNICEF, European Commission 등을 포함하는 국제기구가 출원한 총 원조금 중 약 7%가 교육부문에 투자되었고, 무상원조가 아닌 대부이기는 하나 단일 기구로서는 가장 큰 교육투자 기구인 World Bank는 교육투자를 은행의 5대 우선 사업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연도별로는 기복이 있으나 지난 40년간 교육

에 대한 투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대—60년대 평균 3%, 70년대 4.6%, 80년대 4.5%, 90년대 7.1%—시켜 왔다.⁷⁾ 물론 UNESCO와 같은 비정치, 비경제 기구에서는 당연히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 비중이 다른 사업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2004~2005년 정규사업 전체 예산 중에서 순수 교육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8.0%로 이것은 교육, 문화, 과학, 정보를 포함하는 전체 순수 사업예산의 약 37%에 달한다.⁸⁾ 이미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 EFA(Education For All), FTI(Fast Track Initiative) 등은 상기와 같은 다양한 교육자금들이 투자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의 예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최소한 교육과 관련한 주요한 두 개의 국제기구인 UNESCO와 OECD에서 비중 있는 분담금 지출 국가에 속한다.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2000년 이후 양 기구에 모두 정규예산에 대한 분담 비율이 약 2%이며, 이 규모는 회원국 중 평균적으로 10위권에 해당된다⁹⁾. 일반적으로 UN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예산부담금은 그 나라의 경제규모와 국민소득에 비례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UNESCO나 OECD 이외의 기구에 대한 부담금이나 투자도 이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양적 규모는 우리 정부와 교육부문

7) 주 4)의 UNESCO EFA 상황보고서에서 인용.

8) UNESCO 제 170회 (2004 가을) 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예산보고자료에서 인용.

170 Ex/4, Item 3.1 of the provisional agenda 'Report by the D-G on the Execution of the Programme ada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Part II. Budget Adjustments authorized within the Appropriation Resolution for 2004-2005"

의 전문가들이 국제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포함된 이 많은 교육사업비들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나아가서 우리 정부의 국제협력 활동과 관련한 정책을 검토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충고를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과 집행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부에서 다양하게 조달되는 국제원조 자금들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특정한 원조자금 수혜국에서 다양한 재원의 자금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그 나라의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국제협력 활동과정에 우리 정부와 더불어 우리의 교육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게 될 때 비로소 우

리가 국제무대의 한 복판에 서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이라는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¹⁰⁾

국제기구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는 근무 희망자가 속한 국적의 회원국이 내는 분담금의 비율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국제협력 활동의 폭과 깊이도 분담금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식이다. 교육부에서 국제협력 전문가도 최소한 이 비례에 의한 규모 아니 그 이상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우리의 교육열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 자원을 보다 더 개발해야 하는 나라라는 점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명제가 당연히 교육의 국제협력 부문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9) UNESCO : 제 170회(2004 가을) 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예산보고자료에서 인용.

170 Ex/20, Item 7.2 of the provisional agenda 'Report by the D-G on the Status of Contributions of Member States and of Payment Plans'

OECD : OECD 한국대표부 교육관에 의해 2004년에 작성된 미 출판자료, 'OECD 회원국별 예산 기여현황 2001-2003' 참고.

10) 실제로 주로 유럽의 국가들을 중심으로(대부분의 경우 일본이 포함됨) 정부와 전문가들은 국제기구의 사업과 개별 국가들의 원조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원조수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들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기 위해 협력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나라들의 그룹 리스트에서 한국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2004.7월 덴마크, 독일, 네델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7개국이 Working Group을 만들어 UN내의 개발지원체제(Development System)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초안하였고, 이 안을 UNESCO 사무총장에게 보내어 이에 대한 UNESCO의 입장과 유네스코 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 바 있다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System : Issues for Strenthening and Change, 20 July 2004, 영국유네스코대표부를 통해 공문 전달).

2004.11월,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델란드,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17개국은 공동 명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2006-2007 회계연도 사업, 특히 교육부문의 EFA와 관련한 사업추진전략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의견을 묻고 있다. (Prepara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06-2007, 24 November 2004, 영국유네스코대표부를 통해 공문 전달).

“

국제사회에서 교육협력 활동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국제협력부문의 교육전문가 내지 교육부문의 국제협력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정부나 민간이 이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협력 활동에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계화의 세기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

”

Ⅳ. 국제교육전문가 양성

앞서 이야기한 교육부문에서의 여러 형태의 국제협력 활동은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물론이려니와, 선진국과 함께 세계의 교육 발전에 대한 방안을 의논하고, 우리의 교육 경험을 전수하고,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들을 하자면 당연히 이런 분야들의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 센터에 일자리를 만들고 동시에 다른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게 함으로써 연구활동은 물론 국제협력 사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제가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문 영역으로 인정되지 않고서 전문가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전문가 없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는 불가능하다. 그동안 민간인, 공무원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

러 국제기구에서 교육협력과 관련된 경험을 쌓고 있으나 이 경험들을 전달해서 관리하고 활용하게 할 믿을만한 사람과 기관이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세계화에 부응한다는 인식의 토대 하에 지난 10여 년 이래 국내 대학에는 10여 개의 국제대학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국제관계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일은 만사지탄이긴 하나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모든 국제대학원¹¹⁾에서 교육부문에 전공 기반을 둔 교수는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 아주 소수이기는 하나 문화, 인류학, 사회학, 법학 등을 전공바탕으로 하는 교수가 임용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반갑고 다행스러웠으나, 교육전문가 없이는 국제교육협력을 연구하기 어려울 것이고 당연히 후학도 길러지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으로는 국제대학원들이 교육

11) 본인이 외국에 있는 관계로 편지상 교육인적자원부가 생산하는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하지는 않았고, 2004년 12월 중 인터넷을 통해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아주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경희대학교의 9개 국제관련 대학원의 홈페이지 정보를 통해 확인하였음.

부문의 국제전문가를 채용하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적격한 자원인사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교육부문 국제관계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 대학의 사례는 많이 볼 수가 있다.¹²⁾

교육부문의 국제협력 활동에 있어 교육학 배경을 가진 전문가의 참여는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당연한 필요조건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국제협력에서 교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교육협력 분야의 전문가 양성 문제는 우리 정부와 교육학계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참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V. 맺음말

국제사회에서 교육협력 활동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국제협력부문의 교육전문가 내지 교육부문의 국제협력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정부나 민간이 이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협력 활동에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계화의 세기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육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을 주로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 선진국 교육경험을 배우고 참고하는 활동으로만 인식하는 종래의 불

균형한 사고에서 벗어나 이제는 후진국 교육, 세계의 교육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고민하는 한국의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이다. 단순히 경제적 의미에서 뿐 아니라 교육과 같은 인도적 분야에서도 세계화에 기여하는 국가, 국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이다.

교육을 국제관계의 전략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관련되는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그 대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CIES와 같은 조직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의 필요성이나 배경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우리나라 교육관련 연구기관들의 기능적 특성으로 볼 때 현 상태로서는 KEDI에 CIES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CIES를 어디에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오늘의 주제는 아니다. 오늘과 같은 이야기가 많이 논의되고 그런 논의를 토대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때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

임상현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박사학위(교육정책분석)를 취득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 부이사관으로, 현재 유네스코 본부(교육정책전략국)에 파견근무 중이다.

12) 학위 또는 비학위 과정으로 교육부문의 국제관계 정책, 전략 등에 대하여 교육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국 대학의 사례는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영국 Oxford 대학의 Center for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의 프로그램들, 미국 Harvard 대학 교육대학원의 International Education Policy 프로그램, Maryland 대학 College of Education의 Educational Policy and Leadership Department의 프로그램들, 캐나다 Toronto 대학의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의 Comparative,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Education 프로그램 등이 예가 될 수 있다.